

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DDA 농업협상 품목별 협상대책 연구
2. 출장목적: 이행계획서 작성 대비를 위한 WTO 워크숍 참석
3. 출장지역: 스위스 제네바
4. 출장기간: 2009.07.19 ~ 25(5박 7일)
5. 출 장 자

부서명(기관명)	직 급	성 명
글로벌협력연구본부	초청연구원	정대희

6. 출장일정

일 정	주요 활동내역	비 고
07.19	출국 13:30 (서울-파리-제네바)	
07.20	10:00 : WTO workshop 참석	WTO
	15:00 : WTO workshop 참석	WTO
07.21	09:00 : G-10 회의 참석	WTO
	10:00 : WTO workshop 참석	WTO
07.22	G-10, G-33 회의 자료 준비	대표부
07.23	10:00 : G-10 회의 참석	WTO
	15:00 : Informal Open-ended 회의 참석	WTO
07.24	10:00 : TNC 참석	WTO
07.25	귀국 18:00 (제네바-파리-서울)	

7.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

소속기관	직 급	성 명	연 락 처
농림수산식품부	공사참사관	이준원	079-688-4236
외교통상부	서기관	이호열	079-401-8413
농협	차장	최한호	079-765-4101

II. 주요 출장 결과

2009.07.20 (월)

□ Template Workshop

- WTO 사무국은 WTO 농업분여 양허표 개관, 과거 UR 양허표 작성시 검토사항 및 모델리티와 양허표 작성지침 작성경위, DDA 양허표 작성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였음.
- 의장은 Job(06)/99/Rev.1은 중요한 부분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,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.
 - EC, 쿠바 등은 Job(06)/99/Rev.1은 NAMA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농업분야에 대한 실질적 언급이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.
- 의장은 Data와 관련하여, 3 pillar별로 "모델리티 타결시 첨부해야 할 자료", 그리고 "모델리티 타결 이후 양허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" 등이 있으며, 우선 모델리티 타결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음. 특히 7.6일자 통지문을 통해 밝힌 5개 이슈(①농업총생산액, ②품목별 AMS한도, ③품목별 BB한도, ④구간별감축 관련 관세상당치, ⑤민감품목 국내소비량 계산)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음.
 - 브라질, 쿠바, EC, 미국, 우루과이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5개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각각 선별하여 논의하기 보다는 Rev.4를 기초로 하여 수출경쟁→국내보조→시장접근 pillar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음. 의장은 이를 수용하고 상기 5개 이슈 대신 수출경쟁 pillar부터 검토하는 논의를 진행하였음.

2009.07.21 (화)

□ G-10 회의

- G-10 회원국들은 대부분 어제의 비공식 open-ended 회의의 논의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회원국들의 참여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함.
- 오후 워크숍에서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 때, G-10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만약 논의되는 경우 적절한 개입을 하기로 하였음.

□ Template Workshop

【 국내보조 Pillar에 대한 논의 】

- 우루과이는 OTDS와 관련하여 각국의 농업총생산액 수치가 사무국에 모두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각국의 조속한 통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.
- 미국은 추후 각국이 제출하는 농업총생산액 수치 검증을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.
- 우리는 NAMA협상에서 진행 중인 품목범위(product coverage)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분야의 품목범위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, 이 경우 OTDS 산출의 기초가 되는 농업총생산액의 변경도 불가피할 것임을 표명하였음.
- EC는 품목특정 AMS와 관련하여, 품목정의(identification of "product")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평균("average") 산출을 위한 방법(methodology)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을 표명하였음.

- 아르헨티나는 블루박스 지급 실적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 과거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를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무국에 제출된 통지는 등 개별 품목이 아닌 품목군 기준으로 블루박스 지급액을 통보하였다고 지적하였음.
- 향후 개별 품목에 대한 정의와 과거 지급실적 분리(dis-aggregation)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였음.

【 시장접근 Pillar에 대한 논의 】

- 미국은 구간별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HS description/ nomenclature, WTO bound의 기준시점 (UR, GATT 24조에 의한 변경내용, GATT 28조에 의한 변경내용) 등을 제시하였음.
- 아울러 TRQ에 있어서는 UR TRQ/DDA TRQ의 합산/별도 구분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.
- 아르헨티나는 민감품목과 관련하여,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각국은 각 deviation별 TRQ 증량 수준을 정리하여 세부원칙에 첨부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음.
- 아울러 minimum tariff quota expansion, sub-allocation을 활용할 국가들은 어떤 품목을 어떤 신축성에 적용할 것인지를 모델리티에 첨부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음.
- 호주는 일반 개도국 외에 RAM, SVE, LDC 등 여러 부류의 개도국이 있으므로 각 국가가 어디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정리하는 방안(관련 목록 작성 후 첨부)을 제시함.
- 이에 대해 우루과이는 WTO는 전통적으로 회원국을 선진국·개도국·극빈개도국 등 3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, 추가적인 세분화는 물론,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목록을 모델리티에 첨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음.

2009.07.22 (수)

- 당초 23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Template Workshop은 논의의 진전이 없고 회원국들의 여름휴가 이후 논의를 계속하자는 요구에 22일로 마무리되었음.
- 24일 G-10 SOM급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응자료를 대표부에서 작성하였음.
 - TRQ 신설과 관련하여 민감품목의 경우 Rev 4.의 TRQ 증량 이외의 다른 옵션들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 선택옵션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TRQ 신설의 허용범위 보다는 기존에 TRQ가 없는 품목도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설명하였음.

2009.07.23 (목)

□ G-10 SOM급 회의

-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G10 국가들은 양허표 Template 논의에서 아르헨티나 등이 기술적 논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지적하였음. 그리고 양허표 Template에 대한 논의가 기술적인 논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
 - 또한 의장을 지지하여 의장 주도의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고, 다자 프로세스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
- 의장에게 여름휴가 이후 어떤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름휴가 이후의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음.

□ Open-ended 회의

- 의장은 Template workshop에서 있었던 논의들을 정리하고 여름휴가 이후 논의를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.

2009.07.24 (금)

□ TNC 회의

- Lamy 총장은 NAMA와 농업분야에서의 한주간 논의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농업부문은 9월 셋째 주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밝혔다.
- 9월 3일 주간에는 인도에서 G-20 통상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Lamy 총장과 농업 의장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. 우리나라도 G-20 회의에 초대 받았음.

III. 전망 및 소감

- DDA 협상이 7월 20일 주간부터 재개되어 주요국들의 고위급 본부대표단이 파견되어 논의에 참석했지만 협상에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.
- 농업의장은 여름휴가가 끝나고 협상이 재개되는 9월부터는 양허표 작성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고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, WTO Lamy 사무총장은 9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10월 중 모델리티 5차 수정안을 작성하고 11월경에는 모델리티 타결을 시도하도록 각 협상그룹의장들을 독려하고 있음.
- 그러나 우리나라 협상단과 제네바 대표부 그리고 주요국들의 의견은 기술적 논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. 특히 협상타결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- 정부는 분석적인 부분에서 연구원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 이를 위해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온 WTO DDA 협상과정과 UR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함을 느꼈음.
- 협상에 대한 이해도 증대 및 대응 능력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인력양성 계획이 필요함.